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2월부터 월 50만원까지 구입 가능, 10% 할인 혜택 유지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 운영한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하여 침체된 골목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0%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올해 150억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17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

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2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어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약 1,100개의 가맹점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매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취약계층 명절 지원금, 외출 장병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금 등 정책 발행 상품권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확대와 할인 정책으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형 기자



임실사랑상품권

(사진=임실군청 제공)

순창군, 기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순창군이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법 적용 강화를 따라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군은 5인 사업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7일부터 시행기로 하고 최근 2년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군은 그동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 기업체 현장방문과 지도를 실시해 왔다. 27일부터는 법 시행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은 인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과 지도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적용 초기단계인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비롯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안전이 아발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내달 8일까지 설 명절 행복 나눔 행사 진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명절이 되면 고립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회원에게 찾아가는 방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 맞이 선물을 제공하는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229명을 대상으로 전문요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해 사례관리, 약물관리, 자살 예방교육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회원에게 김 선물 세트를 전달해 정신질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하고, 사회복지가를 도와 부양가족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229명을 대상으로 전문요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해 사례관리, 약물관리, 자살 예방교육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회원에게 김 선물 세트를 전달해 정신질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하고, 사회복지가를 도와 부양가족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발표관광재단 2023 크리스마스마켓 축제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원

단체 여행객 관광버스비 대당 30만원, 3인 이상 소모임 관광객 1인 1만원

순창군이 최근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군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의 여행사 및 수학여행단에게는 대당 30만원의 버스비를 지원한다. 특히, 코레일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20인 이상의 관광객의 경우에는 남원, 익산 등 순창 인근 기차역부터 순창 관광지를 순회하고 기차역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버스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또한, 군은 개별 소모임 3인 이상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숙박 시설 체험 시 체험비의 50% 범위에서 1회 1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관내 식당 이용과 관광지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거주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연중 수시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외거주자나 여행사는 순창군(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여행 당일 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및 지원정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홍보자료를 전국 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관광객 유치지원 관련 텍스트 동영상 상을 제작해 SNS 홍보도 병행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변경"

남원소방서(서장 박현)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된 소방 계획서가 지난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 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소방 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의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 주요 개선 내용은 △소방계획서 대상물 종류별 10종으로 세분화 △서식·작성 매뉴얼로 분리 △소방안전 관리 계획·지위소방대 운영계획·피난계획 구분 등이다.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원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 자료'에서 다운 받으면 되고, 앞으로 관계인은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노년 사회화 교육 강사 모집

남원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남원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노년사회화 교육 강사를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강사 모집 과정은 총11개 과정 230명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라인댄스, 요가, 시니어 요리교실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니어 요리교실은 현재 동부노인복지관이 식단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독거 어르신들에게 요리에 대한 자긍감을 북돋아 주고, 간편식 요리교실을 통해 식사를 해결해 드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오히려도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복지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월 7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2024년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5세 이상은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면, 65세 미만자는 공적 지원이 없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아 시술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원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는 24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9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액은 270만원, 임플란트는 2개까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향목, 연령, 장애인 유무 등 객관적 점수표를 통하여 선발할 계획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면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시술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구강기능 회복과 함께 더 활기찬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